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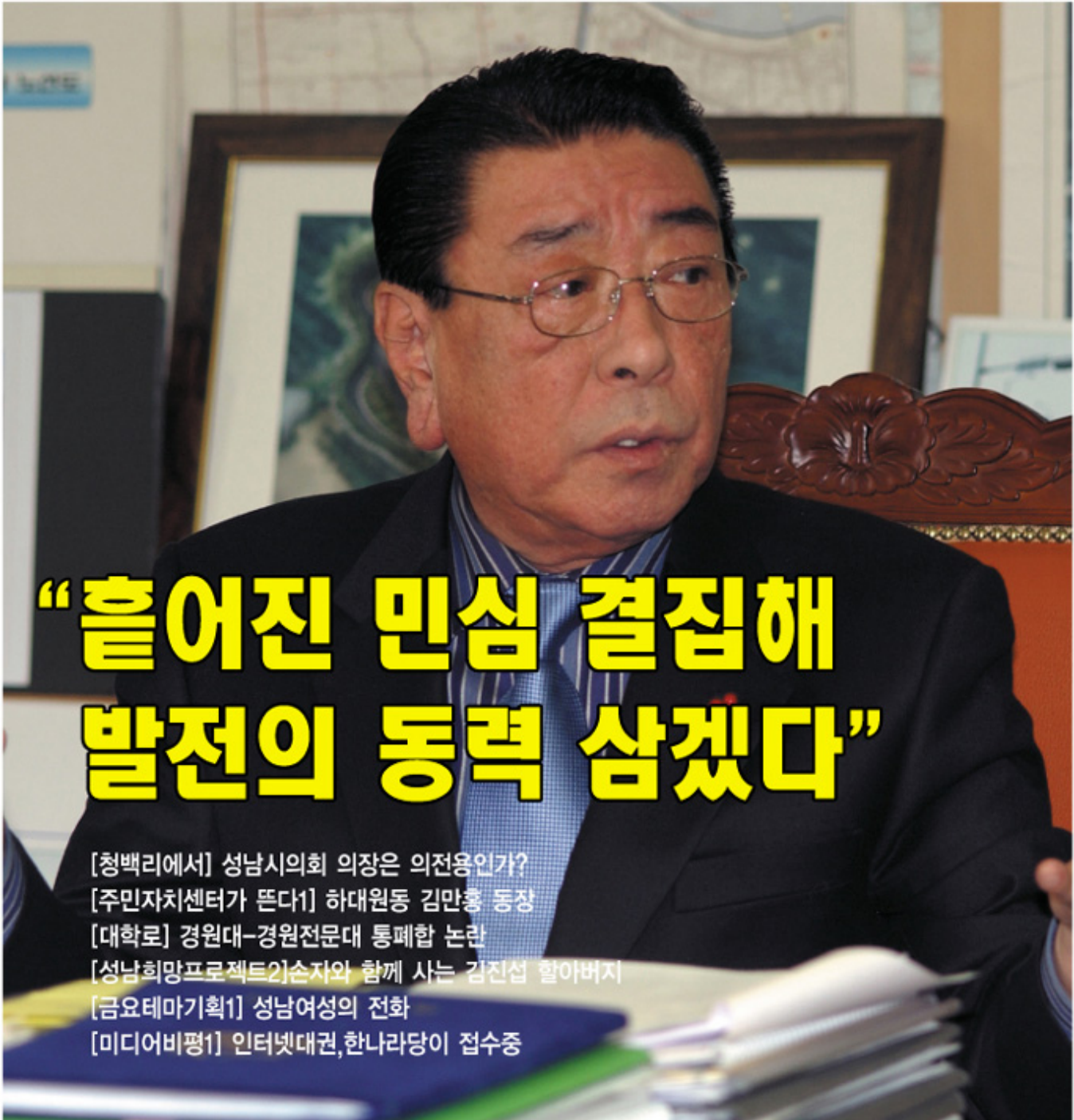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뉴스데이

newsday.or.kr



제5호 | 발행일 : 2006. 7. 1 | 회장 : 김중균 | 발행·편집인 : 김광란 | 편집국장 : 모동희 | 기사제보·광고문의 031-721-9922 | 팩스 031-721-9921 www.newsday.or.kr



“흩어진 민심 결집해 발전의 동력 삼겠다”

- [청백리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은 의전용인가?
- [주민자치센터가 뜬다] 하대원동 김만홍 등장
- [대학로] 경원대-경원전문대 통폐합 논란
- [성남희망프로젝트2]손자와 함께 사는 김진섭 할아버지
- [금요테마기획1] 성남여성의 전화
- [미디어비평] 인터넷대권, 한나라당이 접수중



인터넷 주소창에 **성남일보** 를 치세요

성남일보

snilbo.co.kr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성남상공회의소

<http://www.sncci.net>



회원서비스사업

원산지 증명발급 업무
제조물책임(PL) 공제사업
병역특례업체 지정 업무
무료 구인구직사이트 운영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국제협력사업

해외무역 정보제공/상거래 알선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시장개척단파견·참가지원
외국투자유치단 설명회
해외상의 자매결연 추진

상공진흥사업

성남상공대상 시상식 거행
기업디자인 주치의제 운영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개최
한양대-성남상의 CEO과정 운영
경제발전 심포지움 개최

사무관리검정업무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외)
상설검정장운영

조사연구건의사업

성남지역 경제동향조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조사
중소기업 자금지원 설문조사
분기별 기업경기전망조사
유통업 애로요인조사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3

TEL (031) 781-7901~4

이대엽 성남 시장

흩어진 민심 결집해 발전의 동력삼겠다

신·구시가지 조화로운 발전들 마련... 1공단 1만평 공원 추진



이제 흩어진 민심을 오직 성남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역할을 한 곳으로 집결할 수 있도록 시민화합의 장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역대시장으로서 최초로 재선에 성공해 4기 민선시장 체제를 이끌게 되는데 향후 시장운영 방향은?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드리며 오 늘이 있게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임을 받게 된 것은 100만 인구의 거대 도시인 성남을 위해 추진 중인 시책, 공약사항에 포함된 대형사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는 시민들의 여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시장운영 방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으며 가장 시급한 시장 현안인 수정·중원구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분당과 관 교의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데 혼 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수정·중원구 도시경비(재개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성남시 전체적인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수정·중원 도시재개발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개발 원칙과 재정착(회

주민과 협의해 수정구 43만평, 중원구 30만평에 대해 26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 할 것입니다.

판교가 개발되면 성남의 경우 기존 성남권 과 분당권 그리고 판교권을 거점으로 하는 3개의 서로 다른 삶의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간의 통합을 이룰 대안 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대 도시는 의료, 교육, 치안, 문화, 교 통, 쇼핑 등의 서비스를 어디에서도 받을 수 있는 유틸리티스로 대변되는 최첨 단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신·구시가지의 격차를 입증 하기도 하지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당은 포항 수정·중원 지역도 재개발 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적용도 록 하겠습니다.

신·구시가지의 균형적인 분화시설 조성을 위하여 1공단 부지내 1만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해 샌프란시스코를 만들어 희망대 공원과 연계해 희망의 분화공원을 조성 하고 중원구 성남동 일원 7만여 평에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 시민의 화

합을 위하여 화합의 광장을 조성 할 것 입니다.

시청사 이전(행정타운 조성)이 지연되고 있 는데 추진속도를 높이실 계획은?

행정타운은 우리 시민의 화합의 상징 으로서 신·구 시가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남여수지구에 건립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완료 후 입안내에서 용역 착수 중이며 국 민입대주택단지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 시계획 승인 등의 추진 일정에 따라 건 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체제 출범후 공무원 인사에 대한 폐해가 가장 크다. 이에 대한 대안은?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는 성남이라는 거대 조직을 움직 이는 기본이 되며 조직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민선4기 인사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이 있어도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여 신바람 나 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이민선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난 갈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지?

선거기간동안 각 후보자들 의견이 달 라 반박과 근거 없는 음해로 논란도 있 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인과 무 관함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후보를 선출하고자 과 열분위기가 조성되어 시민 간에도 분열 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성남의 미래를 위한 불가 피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흩어진 민심을 오직 성남의 발전 을 위하여 시민의 역할을 한곳으로 집결 할 수 있도록 시민화합의 장 마련에 많 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 다면?

민선4기 4년동안 오직 시민 여러분들 을 생각하고 성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 여 남은 생애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 니다.

오익호 기자

야탑역 김성남 우산 할아버지, '마술 손, 마술봉사'

망가진 우산 가져가면 새우산으로 둔갑

"뭐 이런 일로 칭찬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봉사를 하는데. 늙은이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준 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 비만 오면 밖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김 할아버지는 항상 야탑역 광장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에 더해 가끔 서울 서초구청 우산수리센터까지 봉사를 나가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김 할아버지에 대한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는 "이런 작은 봉사도 칭찬을 바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며 겸손해한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다. 요즘처럼 날씨가 들쭉날쭉하다보면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을 위해 우산이 되어주는 할아버지가 있다. 일명 우산할아버지로 통하는 김성남(77,수진2동)씨.

고장나거나, 헐거워지고 찢어진 우산이 있다면 분당구 야탑역 분화광장에 계신 할아버지만 찾으시면 된다.

할아버지의 손을 거치면 망가진 우산도 새 우산으로 탄생한다. 뿐만 아니라

바려진 우산을 수리해 지하철 역에서 무료로 빌려주기도 한다.

올 해도 우산 할아버지는 1,000개의 새 우산(500만원 상당)을 목지가로부터 기증받아 지난 달 14일 분당구청에 전달했다.

또한 관내에서 수거하여 수선한 우산 2,000개를 시 관내 각 동사무소에 50여 개씩 배부하여 갑작스런 우천 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80년 지하철 2호선 삼내역 부근의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이라고 덧붙이는 할아버지의 손길은 여전히 우산 고치는 일로 바쁘다.

한편, 김성남 할아버지를 통해 1,000개의 사랑의 우산을 기증받은 분당구청은 성남시 소년소녀가정에 230여개, 분당구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가구에 770여개를 각 동 사회복지사들이 가정방문하여 전달할 계획이다.

나눔의 이웃 결속아동위원의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작은 정성 모아 큰 사랑으로...”

TEL 031)702-8583 FAX 031)702-558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7-11호

후원금 계좌번호 ■KB국민은행 366501-01-057621 ■우리은행 1005-000-911991

청백리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은 의전용인가?

100만 시민의 위상에 걸맞는 전문성과 능력 갖춰야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들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섬에 따라 민선4기 지방자치기 시동을 걸었다. 역대 지방선거가 그렇듯이 이번 지방선거도 민의가 가지는 막중한 힘이 어떻게 정치체를 바꾸고 국민의 참된 바람과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겨준 선거였다. 이러한 점에서 새롭게 출발한 민선 4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지방자치기 기존의 구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고 새로운 정치적 위상 확보와 이에 따른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민선4기를 책임질 지역 앞분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선4기도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선 3기 시의회와 이대엽 시장체제는 시민평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대엽 시장체제를 견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위치에 있는 성남시의회와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5대 시의회 출범을 맞은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집행부 견제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사회로부터 집행부 이종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성남시의회는 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시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제반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소수당 의원들을 끌어안는 포용력과 시민의 불편한 민원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산적한 수정·증원구 지역의 재개발 등 성남시 현안에 정열을 쏟아 부어야 할 속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자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100만 시민을 대표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시의회의 현 위상은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기대치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어 우려를 주고 있다. 얼마전 모 행사에 전체 참석자가 20여

명 정도인데, 정작 단상에는 성남시의회를 비롯해 다수가 소개를 받기위해 단상에 앉아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새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장면이다.

시의회의 수장인 의장은 시민이 준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행사해야 하며 간접적이긴 하나 바쁜 시장의 구현을 위해 시 공무원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박종한 자리이다.

그럼에도 시의회 의장이 주요 행사에서 시장을 보필하는 명예직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의장상의 확립은 5대 시의회를 개원할 예정인 성남시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마차 다수당을 치지한 한나라당 재선 의원들은 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불합경쟁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자리차지 하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시의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시의회 의장의 새로운 위상정립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정에서 시의회 의장이 갖춰야 할 능력은 막중한 역할만큼이나 전문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시의회 운영에 대한 소신을 펼칠 수 있는 냉철

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지역정기에서는 의장선거에 당 내부 사전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구 위원장들과 심지어는 성남시장이 위원장들이 의장선출에 개입한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더불어 지적할 것은 시의회 의장의 후보 자격에 대한 자격 논란이다.

현재 시의회 의장 후보의 자격을 3선 이상이라는 구태의연한 형식적 선을 갖고 있는데 자격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선 의원도 능력과 여건이 된다면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시의회 의장은 정당의 정강 또는 이념 보다는 지역의 핫이슈를 이끌고 참다운 시의회 의원이며 의장이 되어 함은 물론 100만 시민 모두의 염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토대를 기초로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민주적 절차에 따른 능력 있는 시의회 의장이 선출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경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의 전형을 만들어 가는 모범적인 시의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거듭남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편집부

수원역 2분, 인근 9개 학교, 유흥상권이 만난 트리플 프리미엄

신동아 파밀리에 상가 분양·임대

신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탁월한 입지, 저렴한 분양가, 브랜드 신뢰도까지 - 시작부터 특별한 투자, 신동아 파밀리에 상가를 주목해 주십시오!

신동아건설 Tel.031)753-9999

주민자치센터가 뜬다① - 하대원동 김만홍 동장

“효가 살아있고 정이 있는 동네 만들겠다”

100만 인구 돌파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지방자치 분권화가 안착되고 있는 가운데 동 행정 중심에서 주민자치 중심의 센터 운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45개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저마다 특색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동민들의 정서를 담아내고 자부심을 증폭할 수 있는 행사도 다채롭게 열고 있어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일선에서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 기능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일선 동장들의 생각을 알아 보았다.

첫번째로 독거노인효도관광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하대원동을 살펴보았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는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헬스, 필라, 컴퓨터교실, 일본어강좌, 서예교실(사군자포함), 기타교실, 노래교실, 요가교실, 유아반, 아동풍물, 동화구연, 만화그리기, 한자교실, 독서지도, 종이접기, 중국어 강좌, 영화감상, 인터넷방, 도예대출연, 체력단련실이 마련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편집자 주]



“좋은 일을 통해 기쁨은 많이 전파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대원동이 최근의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숨을 고르고 있다. 관내 독거노인들을 위해 계획한 효도관광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일찾집을 열었고, 얼마 전 기관단체 체육대회도 성공리에 마쳤다.

기관단체 체육대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은 동민들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덕분에 하대원동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동네로 정평이 나왔다.

이처럼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김만홍 동장이 서 있다. 김만홍 동장은 올해 3월 하대원 동장으로 입성,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챙기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런 좋은 평가는 김 동장이 굳은 일 마다 않고 직접 참여하는 스타일에서 비롯된다. 그 덕분에 주민들로부터 열광 아저씨 같은 편안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동네 일과 관련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동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대원 새마을회 이양심(48) 회장은 김만홍 동장에 대해 “지역에 많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협력해 줄 뿐 아니라, 손쉬우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만홍 동장 뿐 아니라 동사무소 전 임직원과 등 단체장들 또한 발전된 하대원동을 만드는 숨은 일등 공신이다.

항상 “우리는 하나, 작은 봉사로 기쁨과 행복을 주민과 함께”라는 모토를 가지고 동 행정에 앞장서는 그들 덕분에 하대원동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구동성이다.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도서실에 각 단체 별로 매 달 1만원씩을 지원해 신간도서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과 단체 당 각각 한 명의 어려운 이웃을 선정해 월 5만원씩 자매결연 후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하대원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효용이 높다.

또한 하대원 새마을회의 부녀회가 합심해 발인 독거노인효도관광 기금마련 일일찾집은 행사 수익금을 관내 거주 어르신들의 효도관광지원금으로 전액 기부해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이 넘치는 동네로 발전하고 있는 하대원동은 실제 여수동, 갈현동, 도촌동과 함께 하고 있다.

세대수로는 6,345세대이고 1만9천 586명이 살고 있는 하대원동은 옛날 조선시대 한성부 광주군 풍마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하대원리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대원동은 고려 중엽인 1225년경에 사원이 건립되어 원터 또는 대원이라고 부르다가, 원터 위쪽을 상대원, 아래쪽을 하대원이라고 한 데서 비롯된 지명이라고 한다.

고려 중엽 이래로 지명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 유서 깊은 하대원동이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더욱 이름값을 빛내기를 기대해본다.

2006년, 국민건강보험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1일, 건강보험의 혜택이 더 크고 다양해집니다!

- ▶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면제**
약 45만명에 이르는 6세미만 입원 아동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 **65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확대적용**
전액 본인 부담이던 659개 항목에 대한 보험혜택 적용으로 최고 80%까지 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 **중재적 시술의 본인부담률 10%로 절감**
뇌혈관·심장질환자에 대한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 및 내시경치료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축소하여 중증질환의 치료비 부담이 30~50%까지 낮아집니다.
- ▶ **4대 장기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 실시**
간·심장·폐·췌장 등 4대 장기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혜택 적용으로 장기이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험혜택 적용**
환자가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항목에 9가지 질환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 '송영훈' 형사

“경찰의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경찰은 70점, 가장으로는 30점 “그저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송 경사가 담당했던 사건은 바로 사람들의 휴대폰을 훔거나 훔쳐 해외로 밀수출하는 '휴대폰 장물범'들을 검거하는 것이었다.

한 대당 5~10만원을 주겠다고 택시기사들을 유혹해 손님이 두고 내리는 휴대폰을 매입하는 전분 매입업자, 썬집방에

도 불구하고 “그저 열심히 하다보니 일이 잘 풀렸다”고 겸손해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경인일보 경관관부분 경인봉사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절도, 조직폭력배, 성폭행범 등을 검거한 것에 대해 상을 받은 것인데, 사실 기회가 좋았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

“사명감 없으면 (경찰) 못할 것”이라고 송 경사는 말했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전국을 다 돌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도 발생할만큼 힘든 일이다.

“공개적으로 빗발침이 없다보니 좀 힘들다”고 말한 송 경사는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 경사는 “초등학교 1학년과 다섯살 짜리 두 아들에게는 30점짜리 아빠이고, 아내에게는 30점짜리 남편”이라며 가족들에게 미안해했다.

하지만 “경찰로서는 60점 정도”라고 자평한 송 경사와, 오늘도 사명감을 가지고 뛰고 있는 경찰들이 있기에 우리의 안전이 있고 우리 사회에 질서가 보장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내래 기자

경인봉사대상, 절도 장물범 검거실적 전국 5위 등 화려한 실적이 빛나는 경찰이 성남시민을 위해 근무 중이다. 성남수정경찰서 강력2팀 소속 '송영훈' 형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송영훈 형사는 2001년 1월 5일 배명빈 이후, 2004년 경인일보 주최 중요범인검거경관관부분 경인봉사대상을 수여하며 경장으로 1개급 특진된 것을 포함, 2005년 절도·장물검거실적 전국 5위(경기도 1위)에 빛나는 성과를 올려 지난 9일 경사로 특진한 바 있다.

송 경사를 만나자마자 “이번에 특진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5년만에 순경에서 경장을 거쳐 경사로 승진한 것은 초고속 승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 송 경사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물, 절도, 강도범 검거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핸드폰 장물범 일망타진, 해외 조직책도 유인해 검거

서 손님이 자는 새벽을 틈타 최신 휴대폰을 전분으로 훔치는 전분매입범 등이 송 경사의 주요 표적이었다. 물론 돈을 받고 휴대폰을 넘긴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였다.

송 경사는 그 당시를 “밤새 휴대폰이 울려 잠을 잘 수가 없었을 정도”라고 회상했다. 휴대폰 매입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택시사들을 잡기 위해, 모집책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조사를 벌이다보니 생김 예외소드다.

그 때의 활약으로 택시기사, 모집책, 총책, 해외운반책, 중간업자 등 거의 150여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고 이것이 전국 5위에 올라 이번 9월 특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송 경사는 이런 빛나는 실적에

꿈이 ★ 이루어 지는 도시, 희망이 넘쳐나는 도시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임미경 교수님의 권권하 '북한 아리랑' 연주 모습(06.1.7)



허수아비마을 전경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194-1
TEL : 031)581-4477
FAX : 031)581-4479
<http://www.husuabimaul.co.kr>

예술이 함께하는 자연속의 『예술캠프장』

허수아비마을은 가평 연인산 자락에 자리잡은 문화예술의 공간입니다. 특히 예술인들이 많이 오셔서, 각종 연습과 제자수업을 하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내

- 피아노 12대 보유 (그랜드 피아노 3대 포함)
- 성인 250명 숙박시설
- 개인 연습실 4개(레슨실)
- 카페 (50명 수용) 그랜드 피아노
- 강당 (100명 수용) 그랜드 피아노
- 남송미술관/강당(200명 수용가능) 그랜드 피아노

* 한국음악협회 성남지부 김순미 지부장님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음악협회원 및 단체에는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남송미술관



허수아비마을 카페



허수아비마을 아트홀



백둔계곡



허수아비마을
MYUNGJISAN HUSUABIMAUL

날아간 '판교입성의 꿈' 부적격 당첨자 548명

민간분양 438명 ... 공공주택 임대료 부담 커 계약 포기

민간분양 당첨 부적격 사유 (단위:명)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이하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가 5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양주택에서 부적격 당첨자의 비율은 12%에 달한다.

공공주택 청약자 중에는 210명이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임대료가 부담이 돼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은 판교 민간분양 부적격 당첨자는 438명, 공공이 공급한 공공주택 부적격 당첨자는 110명으로 각각 조사해 예비 당첨자들은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중이라고 21일

밝혔다.

3천660가구가 나온 민간 분양의 경우 무주택 자격(5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당첨자가 2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대주가 아니면서 청약한 사람이 85명, 세대주기간(5년, 10년) 부족 48명, 최근 5년내 당첨자 16명, 성남시 거주기간(2001년 12월26일 이전 거주자) 부족자 3명 순이었다.

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는 50명(분양 가구 2천129가구), 공공임대 부적격자는 60명(분양 1천884가구)인데, 이와 별도로 80여명에 대한 소명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부적격 당첨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주택에서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는 분양 50명, 임대 160명이나 됐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검색은 전산 및 서류 검색을 통해 이뤄졌으며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포기자들은 당첨 취소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계약포기자 대부분은 분양가(2억2천720만~3억8천180만원)의 15%인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임대보증금(4천504만~1억4천114만원)과 임대료(월 31만2천~58만2천원)가 부담돼 '판교로또'의 꿈을 접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청약 자격 여부, 자금조달 가능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묻지마 청약'을 한 청약자가 의외로 많았다"며 "특히 서민들이 분양가와 임대보증금이 너무 비싸 계약을 포기한 것은 수도권에서 서민의 내집마련 꿈이 얼마나 먼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한편 당첨자에 대한 계약기간은 지난 15일 주공을 끝으로 종료됐으나 부적격자와 계약포기자가 예상보다 많아 내달 중순께나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7천132가구' 8월30일부터 청약

판교신도시, 중대형 실부담금 평당 1천700만원선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 이뤄진다. 12일 건설교통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8월 24일, 분양물량중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 분양은 30일부터, 25.7평초과 주택은 9월4일부터 청약을 받기로 잠정 결정했다.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 이뤄진다.

12일 건설교통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8월 24일, 분양물량중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 분양은 30일부터, 25.7평초과 주택은 9월4일부터 청약 받기로 잠정 결정했다.

청약은 4월 중소형 분양때와 마찬가지로 예금 및 저축금액별로 지역별로 날짜를 달리해 7~10일간 접수하며 당첨자는 10월12일 일괄 발표된다.

분양 물량은 당초 계획된 7천164가구(중소형 1천774, 중대형 4천993, 중대형 임대 397)보다 다소 줄어든 7천132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와 함께 오픈된다"며 "채권입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다소간의 일정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중소형 공급물량은 모두 공공분양 아파트로 지난 3월 청약 발탁지도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가는 3월과 비슷한 수준(평당 946만~1천133만원)이 될 전망이다. 중소형 물량중 일부는 처음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공급된다.

중대형은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함께 적용돼 분양가(예상가 평당 1천200만~1천400만원)와 채권손실액을 고려한 당첨자의 실부담금은 평당 1천600만~1천700만원선으로 추정된다.

중소형 주택은 10년간, 중대형은 5년

간 전매가 금지된다.

중대형임대는 동양생명이 42평형 단입평형으로 공급하며 10년 후 분양조건으로 예금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한편 내년에는 렐의양도분(중대형) 980가구, 주상복합 1천266가구, 국민임대 5천784가구, 전세형 임대 2천85가구, 공무원임대 473가구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뉴스데이 광고문의
031)721-9922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가구!



평촌NC전경
031)383-6270



논현메장전경
02)516-3367



영통그랜드전경
031)201-7212



수원에강전경
031)240-1564



PASTEL kiz 문의 031)766-6270
www.pastelkiz.com

경원대-경원전문대 통합 논란 가열

‘학생들 집단반발에 학교측 ‘교육부가 결정해야’



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자동편입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그 절차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학여부가 결정될 때론.

데 1학년 신입생이나 군휴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며 "학교를 다니

학교 측은 "전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문대로 졸업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며 "특수한 경우이다 보니 특별히 허용될 수도 있겠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어 4년제 학생들이 탈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학생들의 교육편의를 위해 부시형 편입과정은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이지만 결국 결정은 교육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 대응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경원전문대 기획처 최성근 전략기획팀장은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공지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2007년 3월 1일자로 통합한다면 2년제는 1년, 3년제는 2년의 존치기간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원전문대학생들은 "결국 학교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협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학교 측은 "이번 통합은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유사학과를 불협합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타 학교의 유사과로 편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상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권리로, 정원의 외편입전형에 무시함으로써 입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발생한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7월 중순에 교육부의 발표가 나와 결정되었지만, 그 때 까지도 학생들과 학교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갈등관계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나라 기자

또 사진영상과측은 "3차 모형을 지방 선거일은 하루 앞둔 5월 30일에 발표한 것은 학생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는 학교측의 꼼수"라고 주장하고, "학생들과의 협의 과정 없이 당장 교육부에 통합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영상과 뿐만 아니라 비서과·E비즈니스과·문예창작과 등 폐지가 결정된 과들은 경원대와 경원전문대의 정분을 막고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밀실 통합 절대 반대" 등 학교 측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폐과 된 이후의 문제. 학생들은 "학교측에서 타 학교의 유사과로 편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타학교측과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통합 이후 학과를 유지하는 존치기간마저도 없앤다는

지 않고 1년이 지난 후 학과 이름 없는 졸업장만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데 그러기 위해 입학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학교 측 대응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경원전문대 기획처 최성근 전략기획팀장은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공지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2007년 3월 1일자로 통합한다면 2년제는 1년, 3년제는 2년의 존치기간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타 학교의 유사과로 편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상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권리로, 정원의 외편입전형에 무시함으로써 입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폐과로 교육받을 권리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학생들 이외에 경원대와 경원전문대의 불협과정에서 흡수통합되는 전문대학 학생들도 역시 문제다. 현재 정

상남시 수장구 복정동에 위치한 경원대와 경원전문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6월 1일, 경원대와 경원전문대의 통합과정에서 학교 측이 경원전문대의 일부 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하자 폐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진영상과·비서과·E비즈니스과·문예창작과 학생 및 교수진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심화되고 있다. 학생들 입장 = 사진영상과 학생회장 김혜민(경원전문대 05학번)씨는 "1·2차 모형안에서 폐과대상이 아니었던 사진영상과가 3차에서 폐과대상으로 지정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도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학교 측의 대응을 성토했다.

www.ksnga.or.kr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제52회경기도체육대회 및 제20회도지사기쟁탈 골프대회

우승

성남시골프협회
SEONG NAM CITY GOLF ASSOCIA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담동 486 제2종합운동장 BE1-3호
TEL : 031-7077-002(3Line) FAX : 031-705-8206

SEONG NAM CITY GOLF ASSOCIATION



4가지 동남아시아 레스토랑
세종의 **장군**
동남아시아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바닷가재 퓨전요리

4인 70,000원



※ 활어회 서비스



가족과 실속있게 즐기는 바닷가재 파티!

고품격 펜션형 바닷가재 퓨전레스토랑 장군수산
칠리소스에 녹아드는 바닷가재 매니아의 요람



숲과 어우러진 펜션형 동나무집에서 맛보는 캐나다산 랍스타와 러시아 킹크랩,
4인 7만원의 저렴한 바닷가재 퓨전요리로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 맛의 향연을 즐기십시오.
바닷가재 요리의 진수를 맛보는 장군수산은 광주·분당·죽전의 유일한 명소입니다.

메뉴 랍스타, 짬, 구이, 칠리, 버터요리, 바닷가재 퓨전요리(13가지 코스요리, 디저트 제공)
4인 70,000원



씨푸드 **장군**
랍스타 전문점

예약문의 031) 718-1231

동나무룸 완비
주차·연회시설 완비

손자와 함께 힘들게 살고 있는 '김진섭 할아버지'

아내는 치매, 아들은 가슴에 묻고...

84세. 편안히 여생을 즐기며 부족하지 않을 나이이지만 세상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하는 이유들로 노년이 힘겨운 분들 바로 그런 경우다.

이번 인터뷰에서 만난 김진섭 할아버지도 힘겨운 노년을 살고 계신 분이였다. 세 자녀를 키웠지만 지금 할아버지 곁을 지키는 자식이 없을 뿐 아니라 몸이 아픈 아내와 어린 손자와 함께 살고 있다보니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정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용은 한달에 기껏해야 50만원 내외. 그나마도 지금은 매달 할머니 몫의 수급비용이 병원비로 들어가는 실정이라.

대학생 한 달 평균 용돈이 30만원 쯤 된다는데, 세 식구가 20여만원에 매달려 있다니. 그래도 할아버지는 "지금 화성에 있는 큰 아들이 아주 잘 해. 가끔 와서 병원도 가고"라고 기록해왔다.

하지만 사업실패는 아들의 효심과는 무관하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활고로 내몰았다.

"그래도 음 해 여기로 이사를 와서 수급도 되고"하시는 할아버지지만 수급원 까닭이 기막히다. 갖고 있던 집을 팔아 아들의 빚을 갚는 바람에 전셋집으로 옮겨오면서 수급대상이 된 것이란다.

둘째 아들은 죽고, 박내뿔은 자기 앞가림만 하기에다 박찬 상황으로 할아버지를 부양할 사단이 없다보니 할아버지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다.

게다가 둘째아들이 난긴 손자 병환이 들 양육하는 것도 할아버지의 몫이다.

누가 봐도 뻘히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 줄 알면서도 할아버지의 답변을 듣기 위

해 '생활이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어려움" 별로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집세를 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별 어려움을 모르겠어"

어째서 어려움이 없겠는가. 살림 사는 것 자체가 다 돈인데. 지금 한창 커나가고 있는 손자 밑으로 들어가는 돈도 할아버지 입장에서선 무시못할 상황이고, 먹는 것, 입는 것 하나 넉넉하지 않은데도 할아버지는 어려운 걸 모르겠다고 하신다. 지금 나오는 수급금으로는 한창 자라나는 손자와 몸이 아픈 할머니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꿇듯하다는 걸 누가 모르랴.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도움은 받는 걸 미안해하세요. 사실 지금 (기차방) 안 친하니까 그러는거지. 얼마나 이법겠어요. 수입이 없는데"는 복지관 관계자의 말이 할아버지의 상황을 뒷받침해주었다.

또 하나의 걱정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의 건강이다.

3년 전 치매로 쓰러져 병원과 집을 오가며 생활해 온 할머니는 현재 3개월째

성남 시청 앞 효산병원에 입원 중이다.

병원에 입원한 후 많이 나아지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는 할머니 간병이 하루 일과다. "내가 하루라도 안가면, 그 다음날 가면 어저께 왜 안왔느냐고 그러니까" 양지동에서 시청까지 오가는 길도 판단치는 않은 일이었다.

"요새 좀 좋지 않았어요. 어지럽고 자꾸 어지럽고 자꾸 쓰러질 것 같고" 하시는 할아버지. 아마 할머니 간병 때문에 왔다 갔다 하려니까 버거워서 그렇게 아낀까싶다.

여든 넷의 노구를 이끌고 매일 시청에서 양지동까지 버스를 타고 오가는 것은 할아버지에게는 큰 일일테니 말이다.

그래도 할아버지에게는 희망이 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손자 병준이(기명). 할아버지는 "친구나 좋아하고 뛰어나가고, 집에 안 있으려고 그래. 그냥 뛰어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러고만 즐기고"라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아서 그런지 애가 힘이 썩어 들어요. 팔도 잘 들고 착하다"고 한다.

요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근처 학교 운동장을 걷는다. "운동이라고 보건 뱃 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학교 마당에 가서 몇 바퀴 돌고 와요. 여기서 나까지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서."

할머니의 병수발과 손자의 양육에 대한 할아버지의 책임감이 늙은 몸은 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왔다.

여든넷의, 이미 늙어 힘이 없어진 어깨 위에 얹힌 인생의 짐이 너무나도 크다.

할머니의 치매도, 손자의 양육도, 생계에 대한 책임도 할아버지 몫이니 말이다. 경제력도 근력도 이제는 없는 나이임에도 여전히 삶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할아버지의 어깨는 이리도 가냘픈데 팔이다. 그 위에 얹힌 짐의 무게가 너무 부거워 보여서, 그런데도 나뉘 들어줄 자식 하나 없는 할아버지의 삶이 안타까워서 할아버지의 마른 손을 포옥 잡았다.

실시일엔, 여러 사람의 작은 마음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오늘을, 그리고 병환이외의 내일을 환하게 만들 수 있다.

■ 후원 : 여금주 한국장사랑복지회
 통합 172-01-251420
 우리은행 302-226650-01-001
 하나은행496-910003-51205

■ 문의 : 청서랑복지회
 031747-2886 차순희 팀장

성남 여성의 전화

“여성 성폭력 피해 전화만 하세요”

12년째 여성인권 향상 위해 ‘구슬 땀’... 여성 대변단체로 자리 매김



● ● ●
 우리 사회의 절반인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회의 주체로서 여성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남여성평등한세상!!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약자이고 소수자인 여성.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성남여성평등한세상!!’이 뛰고있다.

성남여성평등한세상!!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양성평등 등 여성이 사회 전반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평화와 민주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단체. 1994년 12월 설립 이래 12년째 성남에서 여성인권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창립 이래 여성평화회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성 아래에서 신음하는 딸들의 정신적 탈출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소연 할 곳 없던 때 맞은 아내들에게 여

성의 전화는 하소연의 대상이었고, ‘여자가 얼마나 원천치 못하면 성폭행을 당하느냐’는 유교적 사고방식 아래 또 한번 상처받아야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동반자였다.

세월이 흘러 시대가 변한 지금 여성의 전화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상담하는 여성들의 태도는 기존의 하소연에서 탈출구 모색으로 그 방향이 크게 달라져 ‘이혼을 하면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문의가 늘고 있다.

여성의 전화는 이러한 의식 변화에 발맞추어 일주일에 한 번씩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가정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비 지원

필차를 소개하는 등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이 상담전화를 했을 경우 면접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소·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도울 뿐 아니라 재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 여성을 심터에 입소시키는 것도 여성의 전화가 하는 일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의 연령대가 모두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의 전화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청소년 성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뿐만아니라 여성의 전화는 여성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폭력은 일상의 가해자들에 대해 ‘평화학교정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유도하기도 하고, 성취크사를 실시해 올바른 성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순회성교육, 대학생 대상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캠페인 역시 여성의 전화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절반인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회의 주체로서 여성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남여성평등한세상!!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성남여성평화회의 노력은 성남 여성의 희망이고, 우리 모두(남성)을 포함한 희망이다.

성남 여성의 전화 장 순 화 회장 ●●●●



성남 여성평화회 장순화 회장은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여성운동”이라고 말한다. 성남 여성들이 여성의 힘을 모아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성폭력을 줄이고 여성의 주체성과 정책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수많은 활동을 해오면서 겪었던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프로그램 참석자가 호응을 나타낼 때”라고 꼽았다. 의식 전환을 위해 개최했던 ‘여성폭력근절, 평화남성도 필요하다’는 행사에 참여해 ‘자발적으로’ 평화남성선언문을 작성하는 남성들을 보았던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보람찬 순간이었다고. 또, 예전엔 ‘내가 잘못해서’라고 속으로 울분을 삭였던 여성들이 어느 순간 삶의 주체로 나서는 모습을 보며 사회적 인식 변화를 느낄때 보람차다. 사회를 바꿔내는 힘이 바로 시민단체의 역할이자 임무가 아니겠냐는 것이 장 회장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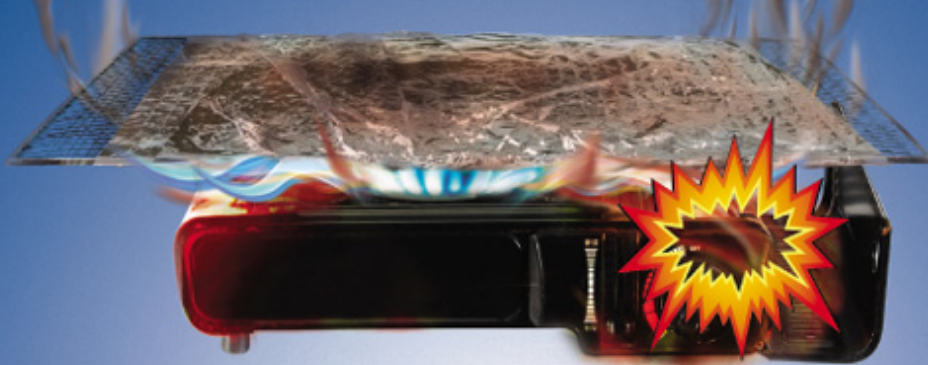
힘든 순간도 물론 많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그것이 충분히 못하다고 느낄 때”는 힘든 순간이다. 얼마 전 발생했던 ‘성남영아마을 성추행사건’의 경우도 그렇다. 불쾌감을 느낀 것은 분명해 성추행에 해당하는 데 그것이 충분히 조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 “여성의 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응하지 못할 때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란다.

■성남여성평화회 <http://snwhl.or.kr/> 031)751-2050 ■성폭력상담 031)751-1120 ■가정폭력상담 031)751-6677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용시 이것만은 지킵시다



사고예방
요령

1. **과대불판**을 사용하지 맙시다.
2. **호일을 감은 식쇠**를 사용하지 맙시다.
3. 열 사용(가열)후 즉시 **부탄캔을 분리(탈착)** 합시다. (소화후에는 즉시 부탄캔을 분리 해야 합니다.)



불량가스시설(제품)신고전화 : **1544-4500**

광주 브리핑

광주시 '만성 교통정체' 이제 풀린다

광주시 우회도로 입체화시설 공사 마무리... 오는 28일 개통식

광주시가 시가지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우회도로 입체화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어 지난달 28일 개통식을 가졌다. 이로써 그동안 정체현상을 보였던 밀목삼거리 등 일부가 교통이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추진했던 광주우회도로 입체화 시설공사는 시가지 중심부와 하남·용인으로 이어지는 국도43호선을 연결하고자 총 142여여의 공

사비를 투입, 2002. 12월 착공하여 3년 6개월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완공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밀목삼거리~국도43호선 교차로 진출입로 및 회덕동~송정동간 연결도로로 교량 3개소를 포함, 총 연장길이 2.41Km, 폭 4.4~26.5m에 이른다.

또, 시는 이에 앞서 지난 98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355여의 예산을 투입 여동IC-밀목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에

교량 2개소를 포함하여 길이 2.2km, 폭 20~35m의 1차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를 마친 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개통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는 한편, "기준도로 확·포장과 송정동~회덕동간 연결도로방을 통해 유기적인 교통체계를 구축, 보다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익호 기자

광주시 GB관리, '최우수상' 차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높은점수 받아

광주시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담당공무원의 자기진작을 위해 실시한 '2006년도 상사업비 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평가는 지난 3월23일부터 4월14일까지 경기도내 21개 시, 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우선해제 및 위락지구 ▲주변지원사업 추진 ▲특수시책 등 6개 분야에 걸쳐 진행했다.

그 동안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적발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사전예방을 위한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온 공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표창을 계기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팔당호 1급수,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팔당상수원 관리 대책' 기자회견 통해 밝혀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지난달 26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0년까지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팔당종합대책을 수립, 인근 지자체와 세부계획을 마련했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으로는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현재 61%에서 90%대로 대폭 향상하고 이를위해 2010년까지 총 1조 5천여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팔당상류 7개 시,군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조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오염원의 총량관리를 제도화 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기도 내 모든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1개 마을, 1개 회사-1개 하천 책임관리 제도를 빈도민 운동으로 추진하여 팔당호 유입지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기에 팔당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관리 및 개선대책 마련하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팔당상류 7개 시·군의 구 시가지를 단계적으로 친환경 고공력 녹색타운으로 정비하는 한편, 팔당상수원과 관련된 주체들과 협약체결을 통해 정책공조와 역할 분담을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위해 팔당종합대책 추진단을 지

사 지속기구로 신설하여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는 한편,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소규모 비계획적 난개발을 양산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 등 불합리한 증빙규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안천의 수질개선 대책도 내놓았다. ▲팔당호의 퇴적물 준설 ▲(서하보-광동교)과 인접한 토지(약 9만평)를 우선 협의의 매입하여 비점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한 자연생태습지 조성 ▲경안천 상류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행 대책 마련 등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행해 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쿠르트 특공대!!

혼자 사는 어르신은 우리가 지킨다!!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이렇게 혼자 쓸쓸히 살고 계시면서 하루하루를 보강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야쿠르트 특공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특공대'란 독거어르신께 매일 1개의 야쿠르트를 지원함으로써 매일의 어르신 일상안부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사회복지사의 긴급지원을 해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T.031)747-1886 (담당자 차순희 팀장)
- 후원계좌 : 302-226650-01-001 (우리은행 한국참사랑복지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여수동 행정타운 이전’ 본격화 될 듯

녹지축 보존에 따른 심의 통과, 행정타운 이전 가속화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 그리고 이주단지 확보에 따른 재개발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4월 성남시가 신구시까지 균형발전과 100만 인구의 걸맞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했던 중원구 여수동 일원 행정

확보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환경부장관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환경단체들을 만나 성남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어려운 현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벌인 결과 녹지축 훼손을 덜 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냈다"며 어려웠던 상황들을 설명했다.

타운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계획은 녹지축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돼 사실상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여기에 환경부는 성남시의 기존시가지와 신도시간의 연담화 및 고밀도 개발방지를 위해 광역녹지축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고 이 공간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 등 영구적인 녹지공간으로 존치 또는 복원해야 한다고 못 박기도 했다.

또 광역녹지축을 가로지르는 성남~장호원간 도로를 지하화 하도록 해야 하며, 광역녹지축 주변은 저층·저밀도로 개발하고, 민약 시정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공공용지로 활용하도록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오익호 기자

성남시가 아쉽게 추진했던 행정타운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한나라당, 성남중원)의원은 9일 "그동안 환경성 사전심의에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임대주택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을 설득하여 지난 1일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성남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 및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확정됨은 물론,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단지

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환경부장관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환경단체들을 만나 성남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어려운 현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벌인 결과 녹지축 훼손을 덜 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냈다"며 어려웠던 상황들을 설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당초 여수동 일대 904,700㎡(27만4천평) 14천30세대였으나 이번 통과된 사전환경성검토에는 3천494세대(10만482명)로 줄어 들었고, 녹지축 또한 당초 550m에서 700m를 확보하는 선에서 불과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행정타운 이전 및

[사고]

“8월 1일 뉴스데이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남·광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데이가 오는 8월 1일 광주판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광주 뉴스데이'는 광주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해 광주지역의 생생한 뉴스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뉴스데이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사 문의 : 031-721-9922

경찰, 장기근속 휴가 ‘가지마?’

‘사실상 휴가 가지말라는 뜻’ 불만높아

“장기근속 휴가를 갈 경우 여름 휴가 일수에서 제외한다면 가지 말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성남지역 A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중인 경찰 경력만 2년째의 B경사의 한숨쉬던 푸념이다. B경사는 그동안 바쁜 업무 탓에 20년이 넘는 경찰들에게 주어지는 장기근속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휴가를 신청했다 여름휴가와 중복된다며 들중 하나를 택할 것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권유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찰이 20년 이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장기근속 휴가 가는 것을 둘러싸고 일선 경찰서에 근무중인 해당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타육이 이 장기근속 휴가 마감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지만 휴가자의 경우 여름휴가 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자 ‘가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반발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9일 수정경찰서 등 성남지역 3개 경찰서와 직원들에 따르면 경찰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을 대상으로 10일간의 휴가를 실시중인 가운데 해당자들에 대해 사용을 권장하고 지난해부터 ‘올 6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5일제 근무 도입으로 장기근속 휴가 자체가 소멸된다’는 내용을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3개 경찰서에 근무중인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가운데 일부는 휴가를 갔다왔지만 상당수가

5·31 지방선거일과 평택 대추리 사태 등이 겹치는 바람에 휴가 급지 조치가 취해져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성남지역 경찰서의 장기근속 휴가 미사용자 현황은 대부분이 휴가를 다녀와 3~4명에 불과한 증원경찰서를 제외하고 수정경찰서가 30여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분당경찰서의 경우는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해당자들이 최근 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내부방침을 통해 사용자에 대해서는 여름휴가 일수에서 제외시킨다고 통보, 사실상 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자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이 내세운 이유는 일선 지구대 등에서 해당자들이 집단으로 장기근속 휴가를 갈 경우 인력부족으로 대민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기근속 휴가를 가지 못한 해당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직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일선 경찰서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병이리 병가습만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C경찰서 경무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미 장기근속휴가 사용을 권장했고 여름휴가와 겹치는 경우 해당자 본인 스스로가 중복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일 뿐 경찰서 자체에서 사용을 못하게 강요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아동급식 이상 없나요?

성남시 아동급식 체계 긴급점검 실시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체계를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29일 성남시는 점검은 도시락 제조하여 배달하는 성남지활후생기관의 1개소의 급식업체를 방문하여 식중독예방에 필요한 각종사항을 교육하는 한편 식자재 구입, 보관 및 배달의 전 과정을 점검하여 식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는 지역 내 방과후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급식위생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동급식이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성남시가 점검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리를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급변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에는 차질이 없도록 급식위생에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지난 9일에는 지역 아동센터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급식위생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조하여 순회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남한산성 생태학교가 문을 엽니다”

민족의 성지 남한산성서 숲 체험하세요

21세기는 생태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일보는 창간 6주년을 맞아 독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족의 성지 남한산성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남한산성 숲 체험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엔 문을 여는 남한산성 생태학교는 환경의 보고인 남한산성의 생태를 보존하고 환경문제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한산성 생태학교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인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민족의 성지를 따라 걷는 남한산성 숲 체험
- 일시 : 2006년 7월 29일(토요일) 오전 10시 ~ 12시(2시간)
- 장소 : 남한산성 남문 주차장(9번 버스 종점)
- 대상 : 숲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30명)
- 준비물 : 물, 약간의 간식
- 참가비 : 무료
- 문의 : 031-721-9922



분당차여성병원 개원

국내 최대규모 여성전문병원 '시동'



“분당차여성전문병원 개원을 통해 수지, 용인, 판교, 이천 등 수도권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여성·소아환자 및 산모에게 차병원만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분당에 국내 최대규모의 여성전문병원이 들어섰다. 여성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목표로한 분당차여성병원이 지난달 27일 개원식을 갖고 진료를 시작했다.

아파트동 354번지에 지상 5층 지하5층 규모로 지어진 차여성병원은 산부인과를 비롯 부인비뇨과, 소아과, 맞춤분만센터, 모자병실, 황도방, 불임센터, 산후관리센터, 비만체형관리센터 등을 갖춘 국내 최대 모자병원이다.

산부인과는 부인비뇨과, 복강경, 고위협임신, 비만치료, 산후관리, 폐경기 클리닉 등 특수 클리닉을 운영하고, 특히 임파넷속의 태아가 가질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태아치료센터’도 갖

췌다. 특히, 의사가 산모를 직접 찾아가 진료하기 때문에 산모가 움직이지 않아도 진통, 분만, 회복 등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 ‘LDR시스템(선진형 원스톱 진료 및 분만시스템)’을 도입, 산모와 보호자가 모든 분만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소아과는 미숙아 클리닉,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 비만·영양클리닉, 소아성장클리닉, 소아건강검진 클리닉 등을 운영하며, 국내 최초로 소아전용 폐 기능 검사를 도입하는 등 소아 환자를 위한 자체 특수 검사실을 별도로 운영한다.

‘분당차여성전문병원’ 초대병원장에는 서울중앙병원 부원장, 강릉아산병원

장 등은 두루 여임한 국내의 부인암분야 최고 권위자 박정은 교수가 부임했다.

박 원장은 “분당차여성전문병원 개원을 통해 수지, 용인, 판교, 이천 등 수도권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여성·소아환자 및 산모에게 차병원만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스킨케어, 성형, 미용시술 등 여성을 위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접목해 명실 공히 ‘여성모텔케어센터’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7일 열린 개원식에는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내외, 고홍길 국회의원, 디자이너 앙드레 김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성남일보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전문 이더트 인테리어 | 상가 인테리어 | 전문 사무실 시공 | 건축·설계

플러스건축

최상의 인테리어
저렴한 책임시공

인테리어의 선구자 / 30년 전문시공 대표 이 상 훈

HP 011-9964-4298, 사무실 032)529-9591~2, FAX 032)513-9442

분당 차병원 소화기 내과 임규성 박사

“급성간염, 청결과 예방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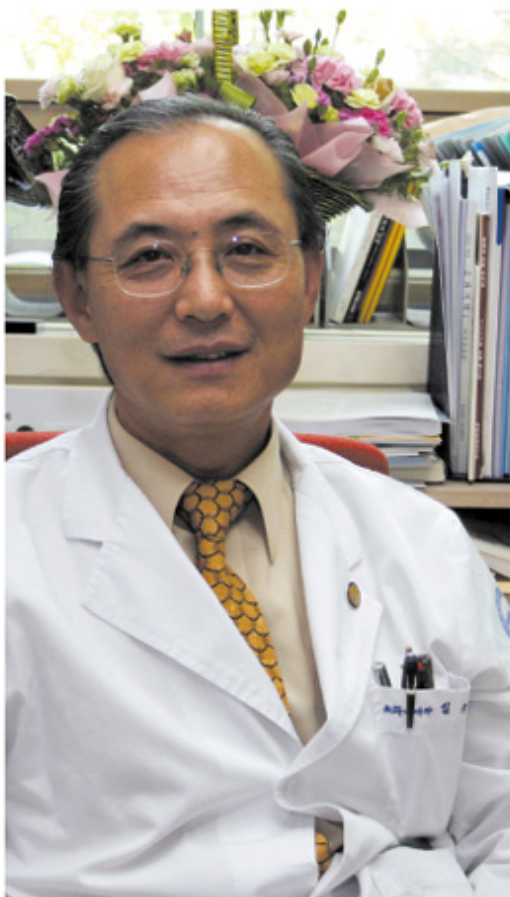
개인위생과 환경위생에 대한 지식 필요... “자신의 건강 가볍게 생각 말아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40대 부장이 “최근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라고 부인에게 매일 이야기하겠다고 한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지도 권할 때마다 회사 일을 핑계로 기회를 놓쳤지만, 심은 몸에 이상이 있을지를 염려하여 일부러 떠났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회식이 있던 다음날부터 시작된 전신의 두드러기와 막간의 구역질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게 되었다. 검사 결과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으로 판명되었다. 사실은, 가족 중에 할머니, 아버지, 삼촌이 간질환이 있었고, 큰삼촌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기집 식구들은 간염이 유전적 기질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유전적 요인 보다는 B형 바이러스의 모태간염에 의해 식구들 모두가 전염되어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복잡한 현대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자신의 건강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저자는 각종 간 질환의 증상 및 질환을 일으키는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간염에 대한 지식을 넓혀 이를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



간장의 구조 = 복부의 우상복부에 위치한 간장은 내장의 장기 중 가장 큰 장기이다. 간장의 무게는 남여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성인 남자는 1000그램 내지 1500그램, 성인 여자는 900그램 내지 1300그램이다. 이는 체중의 1/40 내지 1/50에 해당한다.

간장은 경장간막(Falciform ligament)을 경계로 우엽과 좌엽으로 나뉘는데 우엽은 좌엽 보다 7배가 더 크다.

생체의 화학 공장 = 간장은 합성, 저장, 분해, 배설, 해독 등 다재롭고 복잡한 활동을 운영해 생체의 화학 공장으로서 생체유지에 다채로운 역할을 하고있다.

간장병의 증상 = 간장질환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 간은 그 기능이 심하게 나빠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인데 평소에는 일부만을 가동시켜

충분한 여유를 갖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의 일부가 나빠져도 다른 부위가 대신 보상작용을 하므로 간기능의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 쉽게 피곤해지고, 일이 힘에 부친다는 소리를 한다. 이럴 때 간기능 검사를 해보면 간질환이 있음을 우연히 발견하는 수가 많다.

증상으로보면 ▲황달이다. 황달은 간장병의 대표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이다. 황달이 생기면 눈의 흰 부분이 노랗게 되고, 차후 피부도 노랗게 변한다. ▲출혈과 복수다. 간장 질환 때 갑자기 토혈을 하거나 코출혈 같은 변(자장) 같은 변을 보이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식도 정맥류의 파열 또는 간경변증에 잘 동반되는 위궤양의 출혈이나 급성 미란성 위염 및 급성 출혈성위염 때문이다.

▲거미상 혈관종이다.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들에서 가슴상부나 어깨 등에 거미줄 같이 보이는 피부병변이 있는데, 중심은 붉은 점이며 주위는 가는 혈관이 방사형으로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메뚜사의 머리증세다. 간경변증이 진행하여 분맥혈액이 간내로 들어가기 힘들 때 측쇄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가게된다. 이때 분모인 식도나 직장의 정맥이 종대 되어 쉐리모양 부풀어 정맥류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의 모양이 그리이스 신화의 머리카락이 뱀같이 보이는 메뚜사의 머리 같다고 하여 나온 말이다.

▲멍이 잘 든다. 간질환 때에도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난다. 간질환의 종류를 살펴보면 ▲급성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장 바이러스(Enterovirus)의 일종으로 RNA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는 대변 중에 배설되므로 이것에 오염된 음료수나 어패류 같은 음식물을 섭취 하였을 때 유행적 또는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그 다음 ▲급성 B형간염이다. 오랜동안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1965년 미국의 Blumberg박사가 호주 원주민의 혈액중에 지방과 탄백질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입자를 발견해 이를 오스트랄리안 항원이라고 명명하였다.

▲급성 C형간염이다. C형간염과 E형간염 바이러스는 과거 비A비B형 간염바이러스로 이야기 되어왔으나, 1989년에 야 그 환인균이 알려지게 되었다. C형간염바이러스는 감염 후 약 6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 ▲급성 D형간염 바이러스는 1977년 이탈리아의 Rizzetto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는 불완전한 RNA 바이러스로서 B형간염 바이러스의 껍질(HBsAg)로 싸여 있지 않으면 균의 번식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균은 B형간염 환자나 보균자에 중독간염이 일어나거나, B형간염 바이러스와 동시 감염으로 우리 몸에 침범하게 되므로 단독 감염은 없다. 그러나, 아주 좋은 예방법은 D형바이러스는 B형과 같이 감염되므로, B형간염 바이러스의 예방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급성 E형간염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A형간염과 비슷해 보균자도 없고, 만성간염환자도 없다. 또한 전과 양식과 잠복기(2-9주)도 비슷하다. 이는 대부분 저개발지구등 환경상태가 안좋은 지역에 호발한다.

이 바이러스가 임신부에 감염되면 10-20%에서 전격성 간염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그러니 평소엔 개인위생과 환경위생에 대한 지식을 넓혀 주의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입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A형, E형)에는 깨끗하지 않은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음식을 끓여 먹으며, 손을 자주 씻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대권, 한나라당이 접수중 ①

개혁사이트 '의제설정' 기능없어, 뉴라이트 중심 보수사이트 급성장



여기서 2002년 대선부터 2004년 총선, 그리고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의 인터넷의 흐름을 되짚어 보자.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인터넷의 지원이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연론의 공세, 각종 보수단체의 벽을

로 경지하면서 천미반복의 극우적 시각만 드러낼 뿐이었다.

뉴라이트의 등장은 이같은 고식적인 내용이 아닌, 그야말로 나름대로 합리성과 자유시장주의에 대한 뚜렷한 이론 등을 들고나와 인터넷 팬을 흔들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이들이 누리꾼들에게 환영 받은 것은 조작제나 지만원 씨 등 일방적인 천미반복이 아닌 교과서포럼의 이영훈 교수와 같이 천일 또는 과거사청산을 나름대로 정교로 논리로 공격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공격을 선도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 386들의 '오만과 시종하오'가 조중동에 부풀려지는 대신, 이들은 조중동에 의해 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지성'들로 이미지 메이킹된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한나라당에 의해 확대되고 조중동에 의해 증폭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한나라당을 대체할 대안세력으로써 각광받게 된다.

바로 이들이 보수우익의 입장에서 인터넷 여론과 답변을 주도하는 집단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황인태 서울디지털대학교 부총장(박근혜 디지털특보)은 2004년 5월 한나라당 특강에서 '종이신문 조중동이 700만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인터넷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노사모는 25억명 네티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노사모 회원은 5만명에 불과하지만 댓글과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5만명의 제곱수인 25억만명분의 활동을 한다.'고 강조했다.

황 특보의 지적은 한나라당-조중동 동맹의 성격과 한계를 나름대로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우군이 쏠릴 필요했던 것이다.

종래 한나라-조중동 간의 '핑퐁게임'이 아닌 한-조중동-인터넷 삼각동맹으로 인터넷 여론이 (참여가 아닌)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대세장악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보수우익 매체의 성장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과 한-조중동의 지원이라는 이중의 토양속에서 나온 것이다. (계속)

-기사제공 : 대지보(jabo.co.kr) 이정은

이른바 개혁을 표방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거듭된 실정과 보수연론의 집요한 흠집내기로 '개혁피로'가 누적되면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반면, 한나라당 지지세력은 과거의 달리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총동원, 결집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치적 분석은 대체적으로 맞지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바로 인터넷의 판도변화이다.

한나라당 입승의 숨어있는 1인치는 인터넷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그리고 2004년 4.13 총선에서 탄핵당한 노대통령을 구하고 열린우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인터넷 조차 이제 더 이상 정부여당의 진지 역할을 못하고 보수세력의 공세에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승리의 가장 큰 의의를 찾으려면 바로 인터넷에서 보수세력이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과 대결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과 이같은 흐름을 2008년 대선에서도 이어갈 기쁨을 마련한데 있다고 할 것이다. 노대통령의 등장과 더불어 진보적 의제를 설정하면서 정부여당의 절대적 지지세력을 지닌 인터넷이 무력해 진 것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도 있지만, 그동안 보수세력의 태반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2004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뉴라이트의 등장은, 노 정부의 실정에 기댄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성명 등 남북교류부터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른바 '노무현 패러다임'에 적극적인 분체제기를 하는 등 사상과 이론에서 전면적인 분체제기를 통해 이른바 '보수'의 목소리를 높였다.

풀을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전사들의 유덕성이었으며, 이들의 자발적 헌신성으로 인해 대권을 쟁취할 수 있었다.

누리꾼들의 노무현 지지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같은 시대정신의 해석과 적용이 인터넷 여론과 답변을 주도, 조중동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02년 대선구도를 살펴보면 이회창측의 한-조 동맹에 맞서 노무현 후보측은 한겨레-MBC-오마이서프 등 진보 개혁매체) 등 삼각동맹 체제로 압도했다. 인터넷 여론의 장악, 이를 통해 온/오프, 방송까지 이어지는 삼각연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이 뉴라이트 키워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대북 송금 복검수율과 민주당과의 분당, 미국 방문시 천미글썩적인 발언,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와의 대립 등 <서프라이즈>를 중심으로 한 친노 매체의 분열이 일어났다.

그 결과 친노를 표방하는 <서프>와 이에 반발하면서 민주당과 민노당 지지 성향의 동프라이즈(이후 쥘리존으로 개명), 여기서 민주당 지지를 현명하며 분화된 남프라이즈 등이 생겼고, 이후 각 정치행진은 당과 인물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한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보수우익 세력에게도 위기감을 증폭, 2002년 7월 <독립신문>이, 2003년 8월에는 중도를 표방하는 <업코리아>가 속속 창간했다.

이외 조갑제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등이 반복천미 성향을 드러내며, 이때만 해도 보수우익 자체의 목소리 보다는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주

5.31 지방선거는 예상을 뛰어넘어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사상 최악의 참패',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한나라당 압승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것이고, 선거 초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은 압승을 이끈 가폭제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누리꾼들은 선거 분석에 여념이 없다. 대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열린우리당의 무능에 반해 두 번의 대선패배를 겪은 한나라당의 결집력이 승부를 갈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스킨스쿠버 이야기①

“미지의 수중세계, 그만의 매력이 있다”

이태복 기자는 스킨스쿠버 강사 트레이너이다. 현재 경기 인명구조 전문봉사단 성남지역대장으로 상봉백화점, 위도 페리호 침몰사고시 인명구조활동, 양평 버스추락사고시 인명구조활동, 대우건설 남상국사장 한강투신시 사체수색 작업 등 각종 인명구조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또한 각종 단천, 한강, 각 저수지, 바다 등등의 수중정화활동은 물론, 경기전문봉사단, 성남 시시설관리공단, 한국구조연합회 등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스킨, 스쿠버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은 물론 수중촬영, 수중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편집자주]

Scuba diving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하며 모험적인 스포츠이다.

수중세계에서 그리고 열대지방의 아름다운 바다속에서 행형색색의 산호초와 바다거북, 레이바라쿠다, 잭피시, 그레상어 그리고 "영화 니모를 찾아서"로 유명해진 크라운 아네모네피시 등등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약간의 레벨업 교육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수중사진과 수중비디오 촬영도 할 수 있다.

또한 스쿠버다이빙이론과 역사속의 수중보물과 잃어버린 도시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잠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이빙을 즐기는데 굳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기본과정인 Scuba diver 인증과정의 교육을 받고 인증서를 교부받으면 다이빙이론과 모든 즐거움을 경험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더 재미있고 매력 있는 다음 단계의 중급과정, 그리고 고급 과정에 도전하여 수중세계의 모험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럼 과연 Scuba Diving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SCUBA는 Self 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모체 수중에서 호흡할 수 있는 장비라는 뜻으로 수중에서 호흡을 하며 즐기는 잠수를 Scuba diving이라고 한다.

흔히들 SKIN SCUBA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잘 못된 표현이다.

Skin은 수중에서 호흡할 수 없는 즉 수면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그 호흡만으로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은 물속에서 호흡이 가능하나, 아

니면 그렇지 못하기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이다.

올해 초 영국에서 2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죽기 전에 꼭 해 보고 싶은 것 중 1위는 돌고래와 수영하기, 2위가 바로 Scuba Diving이다.

그만큼 매력은 있으나 아직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종파중의 하나인 이유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현지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 보면 바다가 너무 밀리에 있고 동해안의 낮은 수온과 서해안의 좋지 않은 시아가 우리나라의 다이빙인구를 증가하지 않게 하는 큰 이유이다.

그러다보니 풀 맑고 볼거리가 풍부한 열대바다를 찾아 세계 곳곳을 누비는 한국다이빙을 자주 볼 수가 있다.

필자 역시도 자주 해외 또는 제주, 울릉도등의 부어를 진행한다.

이는 다이빙의 보고자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다음에 계속)

이태복 전문기자

프로필

Marine World Dive Academy 대표
NAUI Instructor Trainer (Skin, Scuba)
ASHI Instructor Trainer (First Aid & c.p.r)
Scuba Diving Korea Instructor Trainer
수상안전 강사

이태복 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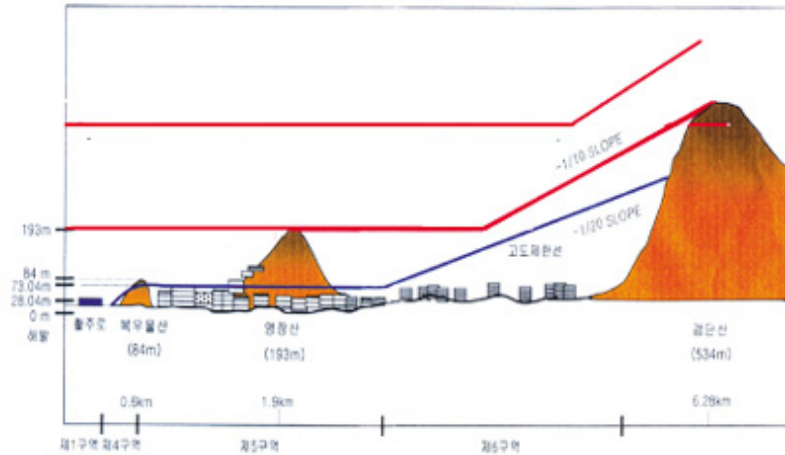


고도제한 시동

고도제한 완화, 또 다시 추진된다

60m 추가 완화 추진 '시민단체 구성될 듯'

<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단면도 >



큰 불의 시민조직이 구성될지도 관심 거리다.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45m로 완화가 결정되면서 이미 국방부에서도 여러가지 성남시 발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이대업 시장의 태도 변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예전에 공항 폐쇄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성남시 재개발 및 도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고도제한이 지난 2002년 45m 완화된데 이어 또 다시 추가로 60m 완화가 추진된다.

이같은 사실은 3월 민선4기 이대업 성남시장이 취임사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따라서 성남시 집행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제2의 범시민조직 구성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고도제한 완화 45m로는 성남시 발전 및 재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선3기 시절 이대업 시장은 지난 2002년 6월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시 발전에 단조를 제공했음에도 민선2기 김병량 전 시장의 공격들로 평가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상복합

이 난립하고 재개발이 늦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도제한 완화 추가 추진은 이대업 시장의 상당한 입장변화를 예고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민선3기 내내 고도제한 완화보다는 비행장 폐쇄를 주장한 점을 비추어 볼때 완화라는 현실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조직이라는 특성상 국방부를 상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민간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에 1차 완화를 성공시킨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또 다시 구성될지, 아니면 재개발을 포함한

신영수 재개발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현행 45m에서 60m완화는 여러차례 얘기속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낙관적으로 분석하고, "다만 이모인해 또 다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나설 뜻을 피력했다.

한편, 1차 완화를 추진했던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999년 10월에 경성대 국방부를 상대로 수십차례 항의집회와 법개정을 추진하던 중, 2001년 성남시와 함께 민간정 협력기구를 구성해 법개정 노력을 기울여 45m완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민족통일 성남시협의회 연혁

- 1980. 10. 8 이법석 통일원장과 초창
- 1981. 5. 14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결성
- 1981. 8. 31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 결성, 초대회장 서정식

민족통일 성남시협의회 주요사업

- 3월 통일연합 금강산 기행
- 4월 5일 식목일 맞이 나라꽃 사랑 무궁화 시기
- 8월 15일 광복절 맞이 태극기 날리기
- 10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민족 통일문화체육 시상식
- 11월 오지가정 돕기 모임창립

평화와 번영을 위한 -
민족통일 성남시 협의회
 www.mintong.or.kr
 전화 031/733-5896 팩스 031/734-7507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제36회 한민족 통일문제작품 시상식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제5대 성남시의회 개원

수정구	가선서구		나선서구		다선서구			라선서구		
	 박길민	 남동상	 박상관	 김동한	 최만식	 이상호	 이수열	 김동상	 이재호	 최성관
중원구	마선서구		바선서구		사선서구		아선서구			
	 지관곤	 유근주	 고세연	 박성심	 김규식	 김재노	 김시연	 홍영선		
분당구	자선서구		차선서구		카선서구		타선서구			
	 박영대	 이명재	 박원익	 정대운	 한광일	 남상욱	 김대진	 최한길		
	파선서구			하선서구			비례대표			
	 정기연	 안계일	 홍시환	 김세숙	 박인구	 이환	 김세진	 이순욱	 정한구	 김현경

제5대 성남시의회가 새롭게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호화의 장을 마련하고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성남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일동

강선장 9단, '태권도는 나의 종교입니다'

성남에 국제태권도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마지막 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소감 피력

“태권도를 나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 인생과 태권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이런 대회까지 열리고 보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보람을 느낍니다”



태권도 공인 9단,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졸업, 국가대표 태권도팀 감독직 역임, 경기대 겸임교수 등 화려한 태권도 이력에 빛나는 강선장 9단의 일상이다.

최근 그를 존경하는 후학들이 강선장 9단을 기리는 의미의 태권도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는 터다.

강선장 9단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소감을 표했다.

그뿐만도 한 것이, 평생 자신을 기념하

는 대회를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정확히 27년 8개월간 평생 중·고에서 재직하면서 약 1,500여명의 후진을 배출했다”는 강 9단.

이처럼 평생을 태권도를 가르치는 데에 헌신한 강선장 9단의 뜻을 기리는 제자들이 모여 24-25 양일간 개최한 것이 바로 ‘제1회 KANG’S OPEN 전국태권도 대회’이다.

이 대회에는 전국 27개 체육관에서 1,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대회는 모두 후진양성에 쏟아 부은 강 9단의 노력의 결과다.

강 9단은 “73년 처음 평생 중·고에 부임했을 당시 60명 정도인 한 학급에 서너명만 도시락을 싸온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니 운동하는 제자들이 매일 영양 부족에 허덕인 것은 당연지사.

강 9단은 “점심을 굶고 운동하는 학생들을 위해 봉급은 거의 학생들 간식과 도복 등을 사는데 썼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순대국”이라고 말하는 강선장 위원장은 “당시 130원이던 순대국에는 꽤지비게

가 많이 들어있어 학생들 영양공급에 부족 좋았다”고 말하며 웃는다.

약혼예금을 팔아서 학생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파혼의 위기에 처할 정도였다고 하니 후진들이 그 열정을 기리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학팀, 실업팀 선수들을 제치고 고교생 국가대표를 선출했던 것과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각종 세계대회에 출전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강 9단은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메달을 따서 태극기가 올라가면 그 순간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회상했다.

“평생을 바친만큼 이제는 태권도를 떠난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태권도는 나의 종교가 되었다”는 강선장 9단.

“앞으로 태권도에 대한 것은 제자들에게 전수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후진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1의 목표”라고 밝힌 강 9단은 “더 나아가 평생 태권도 회관을 지어 풍경을 우리나라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하고 성남시에 국제태권도대학을 설립해 태권도를 통한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나래기자

인터넷 검색창에 **성남일보** 를 치세요

성남 · 광주지역 뉴스를
성남일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성남일보 snilbo.co.kr • 뉴스데이 newday.or.kr

Business Live Cafe Restaurant
Casablanca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You Promise. We Prepare.

Business Live Cafe Restaurant

당신이 힘들고 지칠때 안식처가 되고, 당신이 외로울때 마음을 나눌 친구가 되겠습니다.



추억의 팝송 | 비즈니스, 단체모임, 가족모임 | 영화감상

OPEN (오전 10:00~CLOSE, 새벽 02:00) **Live공연** (저녁 08:30, 09:30, 10:30, 11:30)



T.(031)709-5533, 703-6374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03-1

시의회 의장선거 점입가경

'시장 등(?)' 타고 얻어진 시의장 자리, 민선4기 감시와 견제 능력 있겠는가?

'벌써부터 한나라당 '좌충우돌'... 작은국회, 벌써부터 큰 국회가 조종(?)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입승으로 인해 성남지역도 한나라당 독주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장 선거를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성남시의장이 되기위해 시의원 당선자들의 결정도 무시한 채,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 번복하게 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한나라당 독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성남시 기초의회는 앞으로 4년동안 민선4기 이대엽 호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함에도 성남시의장 선거에서 이대엽 시장의 입김 작용성들이 확실되면서 당선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의혹들이 당선자들 앞에서 흘러나와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앞서 지난달 11일 새마을연수원에서 성남시의장을 추천하고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당선자 의총을 열고 이수영 당선자(현 시의장, 4선)를 압도적인 표차로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나 자신의 뜻과 무관하고 성남시의회에 출마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한 때 긴장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수영 당선자는 결국 받아들이지는 했으나 성남시의회 추천에 있어서는 다음 당선자 의총에서 추천하지며 원내대표 직권으로 당선자 의총을 중단시키는 파행을 연출해, 후자는 결정을 번복하기위한 시간 벌기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당선자들 사이에 나돌았다.

마침내 이수영 원내대표는 선출 11일만에 원내대표를 사퇴하고 성남시의회장에 출마해 결선투표에서 성남시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데 역전극을 펼쳤다. 이를 두고 대다수 당선자들은 노골적으로 '공수를 부렸다'며 이수영 당선자를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당선자 의총에 참석했던 한 당선자는 "입이 열개라고 할말이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다수 당선자들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올바른 '미니정치' 펼쳐야

이수영 한나라당 성남시의장 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후보만이 아닌 5대 성남시의회 전체의 후보로 생각하고,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등 여야를 모

외부세력 - 이대엽시장 개입(?), 큰 국회가 작은국회 조종 '좌충우돌' 일어

이수영 당선자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비아냥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이리려고 시의장 선출을 연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대엽 시장이 이수영 당선자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수영 당선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해명성이 섞인 불멘소리가 확산 일로에 있다.

실제로 한 당선자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수영 당선자를 선출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대엽 측근을 통해 회유를 받았고, 일부 당선자들이 이 시장의 뜻이라며 이수영 당선자를 밀어줄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원구 신상진 국회의원의 적극 개입도 한 몫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해서는 이수영 당선자를 밀어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에앞서 신상진 국회의원과 이수영 당선자가 모 음식점에서 따로 만남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가 어쨌든 이로인해 당선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표의 향방이 급격히 변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민선4기 감시와 견제력은 '빛좋은 개살구(?)

일찌감치 한나라당 독주가 예상되고 있었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결정은 손바닥 뒤집은 사태를 보면서 역시 한나라당이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지사도 한나라당, 성남시장도 한나라당, 도의원도 한나라당, 시의원도 과반수 이상이 한나라당인 상황에서 성남시장의 개입설로 인해 성남시의장이 선출되는 조유의 사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당내 일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 당선자가 32명중 21명으로 과반수이상 차지한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 추천 곧 성남시의회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당선자 의총은 지역정가의 초미로 떠오를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한나라당 다수가 차지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장은 언뜻 보기에 감시와 견제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음에도, 앞치레 결친다고 그런 성남시의회를 성남시장의 개입설로 인해 표심의 향방이 바뀌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남시의장은 어떤자리인가? 2조원의 시민행세 낭비를 막기위해 민선4기를 감시해야하는 성남시의회와 최고 책임자다. 그런 시의장 자리를 성남시장 입김에 의해 이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거기에 휘둘리는 한나라당 성남시 시의원 당선자들도 함께 비난받아야 한다.

두 아유를 혼만 아니라 시정을 견제 감시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밝힌바 있다.

과연 이수영 성남시의장 후보 말대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대엽 시장과의 관계설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흔히 누군 등에게 입고 시의장에 추천되었다고 당선자들 사이에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민선4기 체제에 대해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이다.

성남시 기초의회는 전국에서 교섭단체가 꾸려지는 지역 중 손가락 안에 꼽는 지역이다. 그러기에 성남시의회 당선자들은 발빠르게 미니 국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미니국회를 만들자마자 큰 국회도 하지않았던 좁은 정치를 한나라당이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 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성남시민의 가까운 시선은 기억해야 한다. 과반수 시의원은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모든 행보에 결정권이 주어지는 힘있는 정당임을 잊지않고 굳은 정치를 해야한다.

개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세간에 입방아가 오르내리는 것은 오기정치이자 오만정치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첫 단추를 잘 끼워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익호 기자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격조 높은 분위기 고품격 正統日式 은수사

“오래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당 최고의 일식명가

은수사는 당신을 최고의 VIP로 모십니다.

초특급 귀빈석

조용하고 아늑한 고품격 비즈니스의 명소

정통일식요리 메뉴

감탄을 자아내는 정성 가득한
일식 정통코스로 맛보는 미각의 절정

최고를 지향하는 서비스

정성을 다하는 완벽한 서비스로 '특별한 맛'의 감동을 더합니다.

손색없는 품격의 점심정식 20,000원



특정식 30,000원 / 가족특선 55,000
저녁정식 40,000원 / 사시미 7만~11만원 (자연사시미)

银



司

은수사



예/약/문의
031)705-4700
※대형주차장 완비

창간사

성남일보 창간 6주년에 부쳐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를 선
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성남일보를 창간
했고 성남일보는 그동안 나
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언
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
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지역 인터넷 신문은
지역의 생생한 뉴스를 실시
간으로 제공해 지역의 많은
독자들이 인터넷 신문의 생
생한 뉴스에 접속하고 있습
니다.

이번 점에서 지역인터넷신
문의 성장 가능성은 유효하
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앞
으로 성남일보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
다.

를 연동해 온-오프라인의 연동성을 강
화해 새로운 지역신문의 전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성남일보는 오
는 8월부터 그동안 성남·공주를 대상으
로 발행하던 뉴스데이를 성남판과 공주
판을 별도로 발행해 발행권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둘째, 성남일보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
뉴스 중심의 성남일보를 지역의 다양한
정보 검색이 가능한 포털사이트로 개편
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은 성남일보 포털
사이트가 구축되면 뉴스검색뿐만 아니
라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
는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남일보는 이제 변화와 환경 그
리고 생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려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이달부터 남한산성 생태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한산성 생태학교는 환경
의 보고인 남한산성의 생태를 통해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교육
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성남일보 독자 여러분!

창간 6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지
역언론의 새 역사를 쓰려는 겸허한 자세
로 출발하는 성남일보에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일보는 독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문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1일
회장 김중권

지난 2000년 7월 올바른 인터넷 언론
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창간된 성남일보
가 오는 6월이면 어느덧 창간 6주년을
맞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년은 수도권지역에
서 지역인터넷 신문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느낀 세월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일보가 창간된 당시 성남지역에
는 제대로 된 인터넷 신문 하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
인터넷 신문을 창간한다고 할 때 성남일
보의 인터넷 진출에 대해 부정적 시각과
이를 만류하는 지인들로 많았던 것이 사
실입니다.

성남일보는 지난 6년간의 축적된 경험
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과감히 비판의 화살
을 날리는 정도 언론의 길을 앞으로도
꾸밈없이 걸어 갈 것입니다.

성남일보는 창간 6주년을 계기로 독자
들에게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실을 새로 마련하고 '제2창간
의 자세'로 시작하려 합니다.

창간 6주년을 맞아 성남일보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독자들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뉴스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남일보는 인터넷 일간신
문 성남일보와 오프라인 신문 뉴스데이

NEWS DAY

www.newsday.or.kr

회장 | 김중권
부회장 | 김희만
총무이사 | 김연홍
발행·편집인 | 김희만
편집장 | 오종희
취재기차 | 오지호, 이나래
등록일 | 2000년 9월 30일
등록번호 | 경기 다00907
등록번호 |
발행처 |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96
신동아상가 811
구독·광고신청 문의 | 031721-9922
팩스 | 031721-992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뉴스데이(newsday.or.kr)는 1997년 12월 15일 창간된
데는 오프라인 신문입니다. 성남·공주지역의 실시간 뉴
스는 관공에서 '성남일보'를 가세요.

성남일보 창간 6주년 및 사무실 이전 개소식

지난 2000년 7월 6일 지역인터넷 언론의 깃발을 들고 출범한 성남일보가 창간 6주
년을 맞아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갖고자 합니다.
성남일보는 새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독자들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신속한 뉴스제공을 통해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6년 7월 6일(목요일) 오후 1시 ~ 6시
- 장소 : 뉴스데이 · 성남일보 사무실 ■ 문의 : 031-721-9922





- 런치스페셜 13,000원 | 18,000원 | 25,000원
- 디너스페셜 30,000원~120,000원
- 일품요리
- 꼬리바닷가재 칠리소스(소·중·대) 32,000원~67,500원
- 동파육(소·중·대) 22,000원~45,000원



만강홍 골든벨 이벤트 | 맛있는 음식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행운을 잡으세요!



- 공간** 서현동에 320석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이전. 넓은 공간만큼 고객의 입맛과 취향을 배려하는 만강홍의 마음은 강물처럼 깊고 믿음직스럽습니다.
- 정성** 고객에게 신선한 해물과 야채를 공급하기 위해 가락동 새벽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 최고의 음식 맛은 바로 정성에서 나옵니다.
- 맛** 맛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하며 조리장이 직접 개발한 특별소스. 신선하고 독특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립니다.
- 서비스** 각종 이벤트를 위한 대형틀, 다양하고 알찬 코스요리, 완벽 서비스를 실천하는 만강홍은 고객 우선주의를 실천합니다.

萬江洪

INFORMATION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10시 주차요원 형시대기
 주차 대형주차장 원비 위치 분당 우체국 옆 월빙프라자 3층
 문의 031)705-8555 연중무휴





www.z-in.co.kr

성남일보 창간6주년을 축하합니다.

"아름고 싶다.. 이런 창가"



프리미엄
인테리어 자재
- 지인 -

그녀 마음에 들기 위해 디자인도 컬러도 지루차루 좋아합니다.
아름고 싶은 창이 되어갑니다. 여자의 마음은 특별한 창에만 열리니까요.

* Z:in HAUT는 LG화학의 창호 통합 브랜드입니다.

창에 대한 긴: 생각 **Z:in HAUT**